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0월 18일(주일) 제1070호



예수 닮기 위한 배움이 여물다

온누리교회 세미나 풍성 ... 참가자 모집 중 공동체 필수, 사역팀 필수, 사역팀 선택과정

예수 닮기 위한 배움이 여물고 있다. 알차고, 유익한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체 필수과정, 사역팀 필수과정, 사역팀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동체 필수과정 일본어예배 Basic QT 과정과 수원 Basic QT 과정이 11월 8일 서빙고 신관 101호와 수원 비전홀에서 각각 개강한다. 양

재 Basic QT 과정은 11월 11일 양지 2층 아펜젤러홀에서 시작된다. 강동 하나님의 성품 과정은 11월 7일 강동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사역팀 필수과정은 서빙고 Basic QT 과정 57-60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차례대로 시작되고, 양재 캠퍼스 Basic QT 과정도 11월 1일 문을 연다.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본부 58기와 양지 2기도 열린다. 일대일 양육자반 김영배 목사반은 11월 1일 개강한다. 사역팀 선택과정도 풍성하다. 오늘 (18일) 오후 2시 창조과학 스쿨이 서빙고 홍보관에서 개강하고, 헬로맘 출산 후스쿨이 23일 문을 연다. 이혼자 치유학교(DRS) 10월 24일, 어린이 창조과학 탐사 10월 31일 시

작된다.

11월에도 세미나가 이어진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스쿨 11월 2일,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중급) 11월 10일, 은빛날개 세미나 4기 11월 6일,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1월 7일, 이주민 선교학교 10기 11월 14일에 개강한다. 창조과학 탐사(11월 14일), 성령수련회 60기(11월 21일), 마음치유 미술집단(11월 25일),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고급과정(12월 1일)도 이어진다.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특집방송 '아주 특별한 하루'

CGNTV가 가을 개편을 맞아 특집 방송 홍정길, 이동원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방영한다. 윤형주 장로와 정은아 아내운서의 진행으로 홍정길, 이동원, 김동호, 이재훈 목사가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나는 대담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홍정길, 이동원의 아주 특별한 하루는 1, 2부로 나뉘어 방영된다. 1부에서는 홍정길, 이동원 목사가故 하용조 목사,故 옥한흠 목사와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홍정길, 이동원, 김동호, 이재훈 목사가 출연해 KOSTA(국제복음주의 학생 연합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대담을 나눴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내다봤다.

홍정길, 이동원 목사의 '아주 특별한 하루' 2부는 10월 18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1부는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케이블(C&M 703번, 대구 푸른방송 702번), IPTV(KT Olleh tv 237번, SK B tv 554번, LG U+ tv 183번),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공동체 필수과정				
공동체 / 캠퍼스	스쿨명	날짜/시간	장소	문의
서빙고 일본어예배	Basic QT	11. 8 / 주일 16:00	신관 101호	010-4764-8382
강동	하나님의 성품	11. 7 / 토 09:00	두란노홀	02-475-9686
수원	Basic QT	11. 8 / 주일 16:00	비전홀	010-9567-6627
양지	Basic QT	11. 11 / 수 10:30	2층 아펜젤러홀	031-331-8193
사역팀 필수과정				
서빙고	Basic QT-58기 주일 오전반	11. 1 / 주일 09:00	CGN 홍보관	010-3199-2769
	Basic QT-57기 화요 오후반	11. 3 / 화 15:00	선교관 301호	010-3199-2769
	Basic QT-59기 화요 오후반	12. 1 / 화 15:00	선교관 301호	010-3199-2769
	Basic QT-60기 주일 오전반	12. 6 / 주일 09:00	CGN 홍보관	010-3199-2769
양재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본부58기(양재목요반)	10. 22 / 목 10:00	드림홀	02-3215-3644
	일대일양육자반-김영배 목사	11. 1 / 주일 08:20	강의동 302호	02-570-7349
	Basic QT-주일반	11. 1 / 주일 14:00	한동홀	010-2852-5468
양지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양지2기	11. 1 / 주일 14:00	2층 스크린홀	031-331-8193
사역팀 선택과정				
서빙고	창조과학 스쿨-창조 모든 것의 기초	10. 18 / 주일 14:00	홍보관	010-3869-7785
	헬로맘 출산후스쿨	10. 23 / 매주 10:30	시온홀	010-2786-6221
	이혼자행복학교(DRS)	10. 24 / 토 17:00	두란노홀	010-2539-5665
	어린이 창조과학 탐사(용감한 아이들)	10. 31 / 토 09:00	파주 벽초지 수목원	010-3869-7785
	온누리세계관학교 스쿨	11. 2 / 월 19:30	콘서트홀	02-3215-3267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중급)	11. 10 / 화 19:00	꿈터	010-9267-7123
	은빛날개 세미나 4기	11. 6 / 금 14:00	홍보관	02-3215-3434
	창조과학 탐사	11. 14 / 토 08:00	전북 진안군 마이산	010-3869-7785
	성령수련회 60기	11. 21 / 토 13:30	예담원	011-1720-5221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고급)	12. 1 / 화 19:00	꿈터	010-9267-7123
양재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1. 7 / 토 15:00	강화 성산 예수 마을	010-6340-5234
	마음치유 미술집단	11. 25 / 수 10:00	양재 온누리상담센터	02-570-7536

특집_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2면 특별기고_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4-5면 대학청년부_“청년아 뭐하니?” 8면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1. 목회자 2. 선교사 3. 성도



최원준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나는 과연 예수바보가 될 수 있을까”



‘예수바보행전’이 여섯 글자가 온누리교회 비전으로 선포되던 날, 나는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어렵게 볼 수 있었다.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 승리주의, 세속화 등으로 침몰해가고 있다고 교계 안팎에서 비난하고 있는 때에 복음에 충실한 교회의 회복을 알리는 힘찬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온누리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선교’가 선포되었고, 전통적인 영혼 구원의 복음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가치가 올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예수바보행전’이 교회 비전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회창립주일 설교와 부흥비전집회 말씀, 아울러 한반도여 집회 등을 통해 예수바보행전의 의미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를 위한 바보’,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동의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바보행전을 써 내려가라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여전히 바보보다는 똑똑한 자로,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아지려는 바벨탑의 후예로, 연약해지기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움켜쥐고 싶은 자로 남고 싶은 욕망에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변변치 못한 목사의 고민을 한번 들어 보시겠는가?

나는 ‘지극히 큰 사도’ 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1:1~12:10은 바울의 ‘바보 설교’라고 불린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적들에 대해 자신을 옹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부득불 말한 것은 자기 자랑이었다. 당시 바울이 사도일 수 없다며 비방하고 나선 바울의 적대자들은 모름지기 사도라면 혈통과 배경(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좋아야 한다고 자랑하였다. 또 그들은

사도라면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래야 ‘지극히 큰 사도’(super-apostle)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자신들은 바로 이 지극히 큰 사도가 보낸 사도(사도란 본래 보내심을 받은 자, 대리자란 뜻)임을 과시했고, 이것을 입증하는 지극히 큰 사도가 써 준 추천서를 우쭐대며 보여주었던 것 같다.

여기에 맞서 바울은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가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았음을 말이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또한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와 비교해 꿀릴 것이 전혀 없다고 자랑한다(고후 11:5, 12:11). 바울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환상과 계시도 많이 보고 들었다. 바울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랑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목회자가 이적을 행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일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 성도들은 설교 잘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목회자를 원한다. 그러나 또한 ‘영험한’ 목회자를 기대한다. 이때 영험이란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능력 행사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병자가 치유된다면 목회자 얼마나 수월할 것인가. 성도가 상담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확실한 권면을 해줄 수 있다면 성도가 자발적으로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여기에 좋은 시설만 갖춰진다면 교회 성장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불순한 사모함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 교회를 성장시켜 큰 사도로 대접받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같은 지극히 큰 사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신(新) 사도 운동’을 말하는 자들이다. 신사도 운동이 교회성장학으로 잘 알려진 풀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에게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존 윌버를 초청해 ‘표적과 기사와 교회성장’이란 과목을 개설한 것이 신사도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신사도 운동을 포함한 이 시대 변질된 성령 운동의 이유에 대해 박영돈 교수는 “옛사람의 부패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깊은 사역을 먼저 추구하지 않은 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악의 영이 은밀히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p222). 주님의 관심은 목회나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 목회자와 사역자들 탓이 크다. 그런데 겉으로 이들을 비난하면서도 나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감춰진 욕망이 있으니 아, 어찌할 것인가! “성령의 사람에게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한 분의 평가와 인정이 훨씬 더 중요”(박영돈, p238)하다고 나 역시 설교하지만, 지극히 큰 사도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나는 예수바보가 될 수 있을까?

21세기 우신예찬

15~16세기 네덜란드 인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Moriae Encomium,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는 뜻)에서 ‘모리아’(헬리어로 ‘바보’라는 뜻)라는 여신을 등장시켜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와 사회를 풍자한바 있고, 이는 종교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가 해학적으로 비판했던 바, 재물과 권력에 몰두하고 목양에 뒷전인 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당시 성직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가톨릭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겸손과 청빈, 과감한 교회 개혁 실천과 사회개혁 요청으로 인해 그 인기가 높다(물론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없다는 게 아니다. 또 충직한 개신교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작금의 상황을 보건대 이제 21세기판 <우신예찬>을 써야할 것 같다. 어리석음의 여신 모리아는 ‘기독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언급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부자를 가까이하기보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나귀새끼를 타셨으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도 하늘의 왕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에라스무스는 결국 기독교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종교임을 말한 것이다(강영안, ‘에라스무스’, <철학과 현실> 101, p176 참조).

목회자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인 성도들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분들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불품없게 나귀새끼를 타셨고, 프란체스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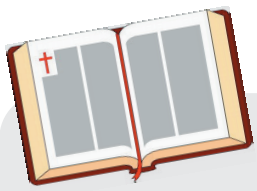
황은 방한했을 때 소형차를 탔지만, 목사 안수 20년을 바라보는 나는 기사가 운전해주는 폼 나는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이 가끔 드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지금 내 차는 경차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이라 부르셨지만, 나는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아슬란’이 더 멋져 보인다(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양 예수는 유대지파의 사자로 나온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욕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모리아’는 ‘모리아 산’ 서 이뤄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은 모리아 땅의 어느 산이다. 우리는 통산 ‘모리아 산’이라고 부른다. 흥미롭게도 모리아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헬리어 ‘모리아’와 발음이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엉뚱한 묵상을 해본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만큼 어리석었다. 정말 우직(愚直)한 사람, 즉 바보처럼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우직함에 감동하셨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셨고(대하 3:1),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내렸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인 바보 같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까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우직한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분의 뜻을 섬긴 또 다른 바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아케다’라고 부른다. 결박하다란 뜻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결박한 이야기란 말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박하고, 내 욕망을 결박하는 아케다 이야기가 예수바보행전의 내용이 아닐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결박하는 모리아(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바보행전을 써나가는 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난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불러본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3:1~10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바보교회입니다. 예수바보란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작은 예수들이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재생산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와 성직자, 선교활동과 설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 온 우주가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까 의심스러운 정도다. 성경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다 함께 모이게 되어있다고 말씀한다.”

예수바보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육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체험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들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고,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체험하고,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 어부 베드로가 설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지적인 영혼, 지혜의 영으로도 임합니다. 그들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주시고, 나와 대화하십니다. 성령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기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몬 레이유라는 프랑스의 기도자는 기도를 “이목집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여 주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생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엔 주목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람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로부터 여인의 뜰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결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면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웬지 마음이 끌립니다.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그만이고, 안 도와줘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돈 한 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다음 말은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은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과 금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

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7-8절).

그는 믿음도 없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손과 다름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손을 뻗어 그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부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요 14:12-14).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뤄면 이뤄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편에 계속)

미국과 유럽교회 쇠퇴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 기독교, 미국과



넬슨 제닝스 박사
선교 전문가

서구 교회 사례 보고 배워야 ... 안락한 삶에 젖은 우리에게 울리는 경종 '부'가 영성 짓누르는 것 경계, 하나님 대신 인간이 관심사 되면 위기

넬슨 제닝스 박사는 약 13년간 일본에서 사역한 전문 선교사다.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로도 재직했다. 뉴헤이븐에 있는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대표도 역임했다. 그는 온누리 선교 30년 역사를 돌아 보고, 더 성숙한 선교를 돕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에게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묻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부탁했다.

/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이미 미술관과 나이트클럽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는 장엄했던 성전들이 지금은 텅 비었다. 교회가 관광 명소나 박물관이 되어 버렸다. 더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과 온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 가치관들이 통용되고 있다. 이제 결혼은 성이나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두 사람 간의 서약이 되어버렸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동등한 진리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도는 불쾌한 선전일 뿐이고, 해외 선교는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던 부끄러운 역사적 유물로 전락했다. 기독교가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절은 희미한 기억이 된 것 같다.

현재 유럽과 북미의 약해지고 쇠퇴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에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본거지에서 왔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왔다. 여러 세기 동안 서구 기독교는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적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서구 기독교 쇠퇴는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서구 기독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비슷한 약점들이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불만을 느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교회와 선교사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교회 리더들과 정치가들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토론하고 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기독교 쇠퇴는 피하지 못하는 미래일까?

유럽과 북미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확산

세계 종교 역사 속에서 서구의 최근 기독교 쇠퇴는 유일한 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본거지에서 약화되어 다른 지역들로 이동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인도의 불교와 페르시아의 배화교일 것이다. 기독교 역사 중에 한때 강성했던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역전된 사례가 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슬람 전의 북아프리카, 이슬람 전의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17~18세기 일본과 중국이 그렇다. 이런 종교적 쇠퇴를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적 전통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감소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려는 것뿐이다.

최근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하려면, 그 지역들의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확산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스케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강림한 이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까지 사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셔서 열방을 구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백인, 기타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예를 들어 7세기 이슬람의 부흥기 무렵, 예루살렘 서쪽인 유럽과 북미보다 예루살렘 동쪽인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미래는 백인들이 주류인 서구를 비롯해 어느 한 민족이나 지역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다.

신약은 기독교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중해 북동 지역, 남유럽의 민족들 중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한다. 그 이후의 세기 동안 라틴 기독교가 점차 서유럽과 북유럽 민족들 중에 확산되었고, 동유럽에서는 그리스 기독교가 발달했다. 또한 기독교 천년 끝자락에 슬라브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라틴 기독교가 북동부 유럽 민족들의 언어와 사회적 상황에 맞춰진 것이다. 종교개혁은 주로 유럽의 르네상스와 계몽운동과 맞물려 일어났다. 유럽 민족들의 전 세계로의 이주(이민), 미합중국과 독일 같은 근대 국가들의 등장, 서구 제국들과 근대 세계 질서 창조의 촉매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19세기 초까지 유럽 나라들은 수백만~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강제 이주시켜, 자신을 제국의 농업과 광업, 물질적 발달을 일구었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했다.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선교단에 의해 유럽의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이 그들의 이주와 더불어 전 세계로 퍼졌다.

약 450년 동안 일어난 현대 서구 선교운동을 통해 20세기 중반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셨다. 이 시기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

진 민족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의 가톨릭과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 또한 이 시기에 복음이 다시 들어간 나라들도 있다. 중국이 그렇다. 중국은 처음 7세기에 시리아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들었지만, 현대에는 이탈리아 예수회, 러시아 정교회, 프랑스 가톨릭, 그리고 다양한 개신교 단체를 통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의 서구 선교운동을 통해 전 세계의 민족들 중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다양하게 성장했다.

이런 현대 서양 선교운동이 20세기 중반에 끝이 났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두 번의 큰 전쟁(제1, 2차 세계대전)을 벌인 것이다. 전쟁은 식민지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끌어넣었으며, 결국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초래했고, 독립 국가(인도, 가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들이 현대 정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이민 방향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서구인들이 외부로 향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보장이 되는 과거 서구 식민지의 중심지로 이주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전보다 더 다양한 기반과 다양한 방향을 갖게 됐다. 가장 좋은 예는 한국 선교사들이 극적으로 성장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다.

유럽의 정부와 대중들은 모두가 기독교와 연관되기를 점점 더 멀리하면서 유럽에서의 기독교 위상은 떨어졌다. 기독교가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막지 못했고, 억압적인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눈에 띄게 지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였다. 미국 본토는 유럽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독교는 무신론 소련과의 냉전 중에 미국을 지지해 주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권 향상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의 주도권은 1970년대에 기울기 시작했다. 그 원인으로 베트남전쟁 패전에 대한 논란, 이민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증가, 모든 민족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를 꿈꾸는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구심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상황과 기독교 존재의 복잡성

서구 기독교에 대한 세계사적 스케치는 기독교의 발달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그리스도인

들의 믿음이 기독교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 우선적 요소라거나 혹은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자면, 최근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쇠퇴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진실한 헌신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기독교 복음 확산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회와 세계 선교가 다면적 세계와 성육신적으로 상호 얽혀있다는 것은 세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존재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은 일면 단순 명백하다. 그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실한 삶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신다. 교회 생활과 기독교 선교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면적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축소한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가져오시고, 성장시키시고, 어둠과 어려움이 잔존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각 지역의 상황은 고유하고 특별하다. 이 글을 쓰는데 있어 유럽, 미국, 한국은 모두 역사, 도전, 역경, 성공에 있어서 흥미롭고 복잡하며 특별하다.

물론 세 나라에는 유사점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구조, 경제발전, 첨단기술 등 다양한 면에서 현대적이다. 그리고 모두 기독교의 존재가 사회 내에서 의미심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나라가 각자 고유성을 갖는다. 기독교 복음이 도착하고 발달한 시기와 방법이 가장 명백한 예일 것이다.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이 유럽인을 조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 유사성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지역의 기독교와 그 영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긴 역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짧은 역사에 비해 유럽과 한국은 오랜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 모두 토착민의 강제이주나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제도적으로 노예화했던 역사가 있다. 반면 미국은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다. 따라서 세 지역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언뜻 보는 것처럼 분명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를 따

유럽처럼 쇠퇴할 것인가?

라갈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 기독교가 명백히 감소하고 쇠퇴했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같은 패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드시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지역의 경로가 비슷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있기는 하다. 미국에는 유럽과 다른 사회적, 종교적 역학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뚜렷한 역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생동감 있는 영성(특히 기독교 영성)과 끈질기게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역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르다. 미국의 슈퍼파워 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한 특징이며, 거기에는 미국이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민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기타 지역으로부터 온 기독교 이민 인구로 말미암아 종교적 다양성이 증가했고, 더 뜨거워졌다. 미국에 라틴계 인구가 증가한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한 이주자들이 유럽으로 쇄도한 것과 다르다. 한국도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다르다.

한국 기독교는 어디로?

최근 한국에서의 기독교 성장 둔화는 이전 세대의 폭발적 증가에 비하면 분명 위기 상태다. 한국 교회의 극적인 성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교회가 개척되면서 싹텄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와 그 후에 이어진 6.25한국전쟁이라는 고통을 통해 깊어졌다. 한국 기독교의 그런 경험은 특별한 기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반은 고통만이 아닌 자양분을 제공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기독교인들, 가난한 이민자들이 최근에 미국으로 왔고, 유럽에서는 독일 나치정권과 공산당 통치 하에서 기독교 영성을 비슷하게 강화시켰지만,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시달린 한국만큼 효과가 깊진 않았다.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와 공유하는 한 가지 낮은 수준의 과제는, 기독교 전통들의 다양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한 기독교 전통들의 반응의 다양성일 것이다. 사회,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미국의 기독교가 믿는 바를 단일 화해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태, 성, 결혼, 성 역할, 이민, 군사력, 중동문제,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한 미국 교회들의 입장은 다양하고 폭넓다. 한국 교회들도 다양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 그것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한국 기독교 미래에 있어서 중심 도전은 유럽과 미국에서 '부'가 영성을 짓눌렀다는 사

실이다. 부가 꼭 종교적 열정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경고가 안락한 삶에 젖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급성장해 교회 건물, 사역 프로그램, 현재 약 2만 명의 선교사 파송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인의 삶은 안락한 주거환경, IT 기술 발달, 멋지고 편리한 교통시설, 잘 무장된 군대 등 전반적으로 1등급 생활수준을 이뤘다. 그러나 그런 사회와 생활방식은 신성한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 선하심 대신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편안함, 행복이 주요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의 궁극적 충성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억누를 수 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모든 개인과 사회는 세상의 유일한 참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서로 상호의존하며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몸의 일부가 억압과 상처를 받을 때 전체인 몸도 같이 아픔을 느끼며, 몸의 일부가 즐거워할 때 전체인 몸도 같이 즐거워한다.

가령 파키스탄, 북부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억압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억압을 느끼며, 남미의 교회성장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성장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 역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동료인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고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겪는 도전들에 공감해주길 바란다. 또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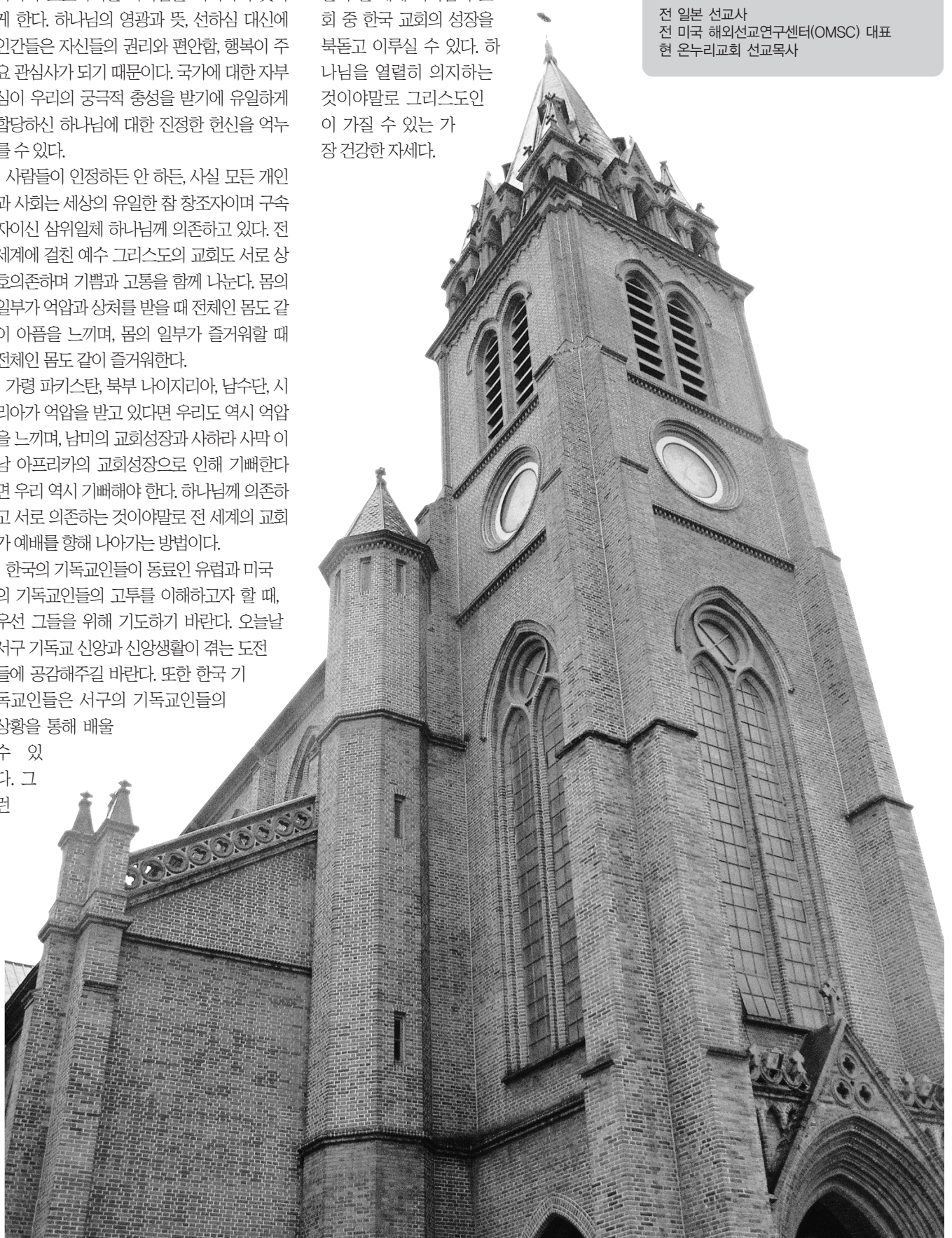
한편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들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상황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격려를 부탁해야 한다. 절대적인 창조 신학과 모든 사회적 사안들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현재와 또한 미래에 다가올 고난과 도전들에 대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지속되고 있고,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실로 하나님만이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중 한국 교회의 성장을 북돋고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자세다.

성, 부패, 리더십, 젊은 세대의 관심사 등 이슈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새롭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키시며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전 세계에 걸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앞에 처한 도전들에 당면하길 바란다.

넬슨 제닝스 박사는 -----

전 일본 선교사
전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OMSC) 대표
현 온누리교회 선교목사



한국교회의 내실적 성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회체험서



김영한 박사

한국교회는 지금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6만 여개로 헤아려지는 교회는 침체와 교인수 감소 추세로부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덕의 소치만이 아니라 큰 부흥회의 효과가 예전 처럼 크지 못하게 된 경제적 부요와 세속주의 영향도 있다.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현세적 삶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었고, 교회생활을 대치하는 많은 대중문화적 오락거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누리교회에 30여 년간 종사해 오다 올해 정년을 앞둔 현장중심의 여성 목회자 정호옥 목사가 쓴 〈2인3각 행진곡〉은 한국교회가 나아갈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서의 제안은 앞으로 양적 성장 정체와 성장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내실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다음 7가지로 제시해 본다.

일방 교육 아닌 상호(相互)교육과 양육

저자가 제시하는 ‘일대일 제자 양육법’은 목회자에 의하여 양육 받은 평신도들이 다른 평신도를 동반자로 양육하는 평신도 중심의 제자 양육법이다. 본서에서는 “일대일은 성경공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공부는 교육은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일대일은 치유와 회복의 맞춤형”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대일은 양육자가 동반자라는 한 영혼을 품고 정말 맞춤형 같은 눈높이 양육하기 때문에 눈물과 기도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와 가슴 벅찬 감동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된 사람은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인격적 전도의 길, 삶의 나눔

본서는 단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가 신앙적 삶의 깊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특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양육을 소개한다. 일대일 양육법은 양육자와 동반자 둘이 만나서 양육교재를 함께 읽고, 나누고, 교재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

본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 성도가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지에게 전하는 인격적 전도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미사여구나 웅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화를 통한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의 나눔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것이다. 인격적 만남 속에서 실패한 삶을 당당하게 내놓게 한다.

“목회자가 먼저 체험해야”

일대일은 양육자가 양육자를 낳아 양육자와 동반자의 계보를 잇는 양육법이다. 일대일 양육법에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양육을 받아 보고 그 경험 속에서 양육의 재생산의 꿈을 펼치는 간증이 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대일 양육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일대일 양육에서는 QT라는 일대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면서도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의 벽 없는 서로간의 신앙적 나눔을 통해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이 일방적이지 아니라 쌍방향적이며, 평신도인 양육자는 동반자와 같이 신앙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는 간증을 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 아닌 수용자 중심의 섬김

일대일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섬김으로서 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로 태어나는 축복된 과정이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신앙체계를 확립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상승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가정이 살아난다. 양육을 거듭할수록 양육자의 영성이 더 깊어진다. 성도로서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며, 양육의 비전을 품게 되도록 해서 목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장로로 하여금 감독 장로가 아니라 목양 장로가 되도록 한다. 또 일대일 양육은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한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공은 성도’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성도 개인의 리더십이 세워진다. 교회가 튼튼해지며,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회자 중심의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대일 양육은 선교와 양육이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게 만들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프로그램 아닌 성장도구

일대일 양육법은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고, 성도 리더십이 세워져 교회가 튼튼해지도록 하고, 성장과 부흥의 원동

력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 일대일 양육은 일반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전도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깊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두 세 사람 가운데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한다. 단순한 전도 비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양육자와 동반자 상호 간에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가운데 서로 간에 배우고 가르치면서 눈물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양육이다. 일대일은 주님과 동반자, 양육자의 일대일이며, 한 사람을 목회하는 한 사람의 작은 목회다. 일대일은 양을 양육자가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요약하면 일대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큐티는 나를 위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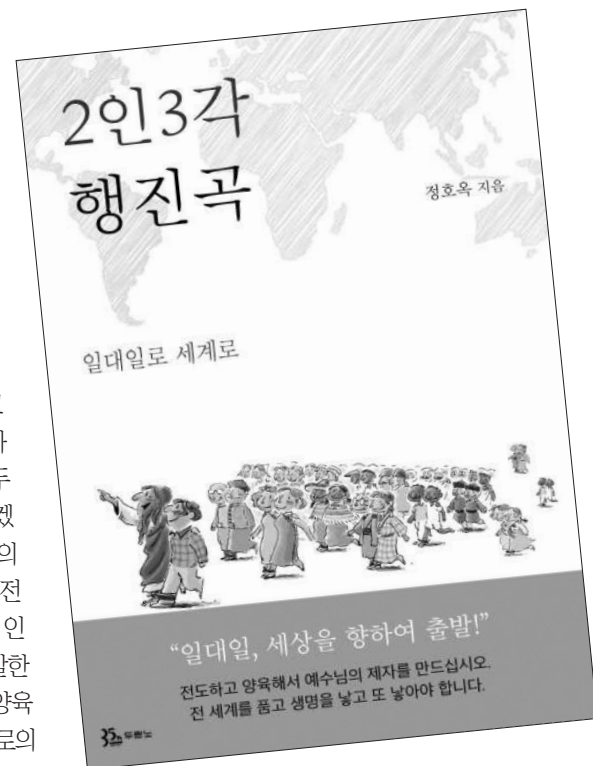
‘선교사적 영성’으로 개교회에서 세계로

일대일 양육법은 개교회 성장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전도다. 일대일 양육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내실적 영적 연대로서 개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대만의 작은 교회에 양육 벤처팀을 보내어 그곳의 신자들에게 일대일 양육 전도를 전수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일대일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로 태어나는 축복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대일은 이런 의미에서 보물이며,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대일은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전 세계를 품고 생명을 넣고 또 넣음으로써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온누리교회의 분명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적 영성’의 구현이다.

일대일 양육, 하용조 목사의 한국교회에 대한 기여

저자 정호옥 목사는 30년 동안 하용조 목사와의 동역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일대일 양육이란 목회철학과 전도에 관한 통찰을 배우고 터득했다고 피력한다. 하용조 목사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큐티와 일대일은 온누리교회의 기본 골



격입니다. 큐티는 모든 교인이 다해야하고, 일대일은 모든 지도자가 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용조 목사가 개척하여 물려준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법이 지속적 성장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전도법이나 전도학은 신학적으로는 많이 제시되어 있다. 전도와 선교,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이론이나 방법론 제시와 더불어 목회현장에 적용되어 실효성을 거두는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다. 본서는 ‘이신칭의(耳信稱義)’라는 개혁신앙의 기본에서 시작하여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시작하여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며 신앙과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평신도들의 전도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일대일 양육의 정신을 요약하는 하용조 목사의 지론을 피력했다.

“복음은 나누지 않으면 썩어요.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전 세계를 품고 생명을 넣고 또 넣어야 합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신앙을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동반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 평신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를 생산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선교의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영한 박사는

기독교학술원장 · 살롬나비 대표 ·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올가을 부터 프로그램 개편...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온누리교회 상담실을 소개합니다

1. 서빙고 상담실

2. 양재 상담실

1999년 당시만 해도 상담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누리교회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실을 개설했다. 그것을 시초로 16년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상담실을 거쳐 갔다. 상담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 그 선봉에 서빙고 상담실이 있다.

서빙고 상담실은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 서 2010년 가을학기부터 인턴 및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인턴 및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상담의 기본 소양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올해 가을부터는 1년 과정의 레지던트 훈련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서빙고 상담실 임은미 팀장(서빙고 상담실)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백석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전문적인 섬김을 하고 싶어서였다. 서빙고 상담실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인연이 되어 벌써 5년째 섬기고 있다.

현재 서빙고 상담실에는 34명의 전문적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 6일 동안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전 예약 필수). 외부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고비용인 경우가 대다수지만 온누리교회 상담실은 심리검사비 외 모든 상담비용이 무료다. 회기 당 50분, 10회 상담이

기본이다.

수퍼바이저 안인숙 박사는 서빙고 상담실의 장점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2,689건 상담, 가족·부부 문제 가장 많아

성도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온다. 자녀, 부부, 부모, 진로, 선교, 신앙, 중독 등 호소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빙고 상담실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빙고 상담실을 찾는 성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상담을 예약한 내담자만 해도 100여 명 가까이 된다. 평균 1개월을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빙고 상담실 가족들은 바로바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늘 내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서빙고 상담실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상담 사례는 2,689건이었다. 면접상담이 2,388건, 전화상담 310건이었다.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가족·부부 74건, 대인관계 36건, 아동·청소년 33건, 우울·조울 28건, 불안·강박 등의 순이었다. 상담실을 찾는 연령대도 다양했다. 30대가 32.9%로 가장 많았고, 40대 28.9%, 50대 12.2%, 10대 9.8%, 20대 8.9%, 60대 7.3% 순이었다. 서빙고 상담실은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의 분포를 보면 온누리교회 성도가 60.6%, 타교인 35.9%, 무교 3.1%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성



서빙고 상담실에서 지난 14일 놀이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들은 언제든지 서빙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문의: 02-793-2997~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상담내용 및 운영시간〉

상담구분	상담내용
면접상담(방문)	■ 개인, 부부, 가족,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상담 등 ■ 화~금요일 10:00~17:00 ■ 토요일, 주일 10:00~15:00
심리검사	■ 성격 검사 MBTI, MMPI-2, 애니어그램 ■ 투사적 성격 검사 H-T-P, KFD, SCT ■ 학습/진로검사 U&I 학습유형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세무상담	■ 매월 첫째 주일 10:30~12:00
법률상담	■ 매월 둘째 주일 10:30~12:00
암환자상담	■ 상담 신청 접수 후, 상담실 운영시간 내 상담사와 1:1연결 진행(수시)
전화상담	■ 매일 13:30 이후



목회칼럼 이창규 목사(서빙고 상담실)

상담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이제는 웬만한 교회마다 상담실을 두고 있으며, 어떤 교회들은 상담사역을 교회의 중심사역으로 삼고 있다. 소위 ‘상담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담에 대한 관심이 큰 것에 비해 상담의 전문성과 내실을 구축하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과 열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상담을 쉽게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시도했다가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되려면 시간, 재정, 사명감과 훈련이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흔히 성품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상담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

이외에도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경청 기술, 공감 능력, 구조화 기술, 정확한 진단, 적절한 해석, 효과적인 직면 등은 일부에 불과하다. 상담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내와 겸손, 시행착오와 끝없는 배움이 이어져야만 하는 길고도 좁은 길이다. 물론 상담을 통해 주어지는 보람과 기쁨, 감사와 축복도 많다. 하지만 상담의 길은 힘이 들고, 인내가 요구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한 모든 상담사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

온누리교회가 30주년을 맞았다. 온누리교회 상담실도 교회의 비전과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30년을 함께 하려고 한다. 온누리교회 상담실의 비전은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 의도하신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

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가 61장 1~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영성 있는 상담사역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사역자들 간의 지속적인 QT나눔, 정기적인 상담교육,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supervision) 등을 통해 상담사들의 영성 함양, 상담 기술 고취,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 상담실은 전문화 사역, 교회내 협력사역, 전인적 사역, 예방적 사역, 선교사 지원사역 등 5가지 사역목표를 갖고 달려갈 것이다.

2015년에 생긴 새로운 변화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실력과 인격을 갖춘 새로운 슈퍼바이저를 영입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수련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슈퍼바이저의 교육 지도를 통해 영성과 실력을 갖춘 상담사가 많이 양성될 것이다. 둘째, 레지던트 상담사 훈련과정을 도입했다. 상담의 기본 자질과 일정한 임상 경험을 지닌 훈련생들을 1년 동안 교육해 온누리교회 상담사로 키워내려고 한다. 셋째, 상담실이 회복사역본부라는 우산 아래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다. 사역의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사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온누리교회 상담실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축복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돌봄과 은혜를 전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온누리교회 상담실이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상담은 길고도 좁은 길

“청춘아 뭐하니?”

그리스도 문화 전파하고, 전도도 하는 청년들

대학로 1번 출구로 나오면 동숭아트센터가 보인다. 그곳에서 청춘 남녀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Pole2 공동체 ‘달콤창고’, ‘백컴 프로젝트’, ‘1,2,3 무브먼트’. 길공동체 ‘꽃길’, ‘갓길’, ‘도담길’ 동아리가 그 주인공들이다. 하루 평균 10만 명이 찾는다는 혜화동 대학로에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달콤창고

“혜화역 4번 출구 227번 사물함에 위료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간식을 준비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익명으로 SNS 앱 ‘around’에 글을 올렸다. 그 키다리아저씨는 온누리교회 Pole2공동체다. 그들은 혜화역 4번 출구 227번 사물함을 ‘달콤창고’라고 부른다. 달콤창고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길이나 하교길에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넣어놓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혜화역, 시청역, 신도림역과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외로운 청춘들을 위로하고, 복음도 전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방송국과 일간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다.

Pole2공동체 이서진 목사는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달콤창고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백컴(100원+Come) 프로젝트

Pole2공동체 주보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붙어있다. 이 100원은 청년들의 후원을 독려하는 용도다. Pole2공동체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주보에 붙은 100원에 최대 1,000원까지 더해져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캠페션 코리야를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Pole2공동체 선교팀장 박찬주 형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 스스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어린이 두 명이 후원을 받고 있다.

#1,2,3 무브먼트

1,2,3 무브먼트는 청춘들의 영성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루에, 2분씩, 3번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프로젝트다. 청춘들이 학업과 취업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동시에 영성관리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Pole2공동체는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1,2,3 무브먼트는 순원들과 공유하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서진 목사는 “1,2,3 무브먼트가 정착되면 ‘1,3,5 무브먼트’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달콤창고: 디저트와 위로의 메시지가 채워져있고, 전국에 100여개가 있다.



▲ 1,2,3 무브먼트 : 하루에 2분씩 3번 기도하는 캠페인.



▲ 꽃길 : 꽃 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길공동체 청년들.



▲ 갓길 : 자전거로 복음을 전하는 갓길 동아리.

#꽃길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점심이면 동숭아트센

터에 위치한 ‘이룸센터’ 사랑홀에 15명의 청년들이 모인다. 길공동체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꽃꽂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꽃꽂이 핸드메이드가 인기다. 드라이플라워(피어있는 꽃을 그대로 말린 것), 꽃꽂이, 부케 등을 직접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길공동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꽃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꽃꽂이 핸드메이드도 하고, 청년들끼리 교체하면서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다.

꽃길 동아리는 고선실 자매(플로리스트)를 주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녀는 길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 때마다 드라이플라워로 초청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는 일도 하고 있다. 꽃길 동아리가 길공동체의 새로운 전도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친구, 가족들을 데려와 꽃꽂이 핸드메이드도 배우고, 또래들끼리 교체도 하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는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문의 : 우윤상 전도사(010-6335-5651)

#갓길(God Gil)

갓길(God Gil)은 자전거 붐이 일었던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동아리다.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전도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갓길은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만든 자전거 모임에서 시작됐다.

양지훈 팀장은 “갓길은 자전거가 없어도 어울릴 수 있고, 또래와 함께 계절을 즐기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공동체 김영창 목사는 “갓길이 청년들이 단체 티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우윤상 전도사(010-6335-5651)

#도담길

‘도담도담’은 어린 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자라는 모양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순우리말 도담도담과 길공동체가 만나 도담길이 탄생했다. 길공동체는 지난 4년 동안 파주 보육원을 섬기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등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파주 보육원에 찾아가 레크리에이션, 진로상담, 요리 만들기 등을 하고 있다. 파주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단체로 온누리교회 길공동체로 꼽을 정도로 성심성의껏 섬기고 있다.

도담길 송다운 팀장은 “앞으로도 파주 보육원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섬기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우윤상 전도사(010-6335-5651)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미얀마의
종교로지 전도사
(온누리M미션)

미얀마에서는 크리스천을 부를 때 어김없이 되묻는 말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혹은 “미얀마 국민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을 수없이 받는 이유는 미얀마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미얀마 국민의 89%는 상좌 불교 신자다. 바마, 산, 몬, 라카인 인종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의 5%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인종은 까친, 까렌, 친이다.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554년 미얀마에 처음 로마 가톨릭 선교사

가 왔다. 그런데 가톨릭은 국민과 군주들에 의해 완벽하게 거부당했다. 이로부터 259년이 흐른 1813년 7월 마침내 미국 침례교 선교사 ‘Adoriniam Judson’ 목사와 사모가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로 회심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Judson 부부는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버마즈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다. 마침내 ‘U Naw’ 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에는 고산족 사람들을 전도했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고산족에 해당하는 인종이 까친, 까렌, 친이다. 버마즈 불교와 버마즈족을 향한 선교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미얀마 인구의 5%만이 기독교인이고, 그들 중 대다수가 침례교에 해당된다.

미얀마 크리스천들이 받고 있는 박해

미얀마 군사정부와 현 정부는 계속 예배의 자유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의가 있다. 정부가 선호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이유로 미얀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방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선교가 정말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잃었다.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회사나 군대든 어느 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 내 조



▲ 미얀마의 군인들.

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대학교 입학할 기회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미얀마에서 모든 종교는 법에 따라 자유롭게 믿을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하는 만큼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다.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일부터 불교 사원을 짓기도 한다.

억압받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두려움과 궁핍한 마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불교를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불교 신자를 미워할수록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됐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도가 모이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미얀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목회칼럼 다니엘박 목사(서빙고 영어예배)

아무리 작아도 큰일을, 큰일도 작은 일처럼



나는 호주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쉬는 시간에 찬양사역을 했는데 그 경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대학생 시절 팀을 구성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됐다. 어

느 날은 찬양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호주에 있는 힐송 바이블 칼리지에 다니며 1년 동안 찬양을 배우기도 했다.

2003년 5월 말 한국에 오게 됐다. 형이 한국에 어학원을 차려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였다. 형이 내게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추천해줬다.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됐다.

나는 가끔 흥미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 판타지 영화나 책을 보거나 운전을 한다.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는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반지의 제왕’이다. 반지의 제왕은 J.R.R. 톨킨의 소설이다.

반지의 제왕 세 번째 시리즈 ‘왕의 귀환’은 제목부터가 흥미로웠다. 키가 1m 남짓한 호빗족이 인간 같았다. 절대반지를 운반하던 주인공 프로도가 ‘골룸’이라는 작은 요괴에게 속아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게 된다. 프로도는

적으로부터 쉴 새 없이 공격을 당한다. 하지만 친구 샘이 프로도를 구해주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된다.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간달프라는 마법사의 도움도 매우 컸다. 작은 호빗들의 움직임과 태도가 매우 흥미로웠다. 호빗족 여럿이 모여 주인공 프로도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해 무릎 꿇고 경의도 표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작아도 큰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큰일이 닥쳐도 작은 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것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세상에서 가장 작았던 호빗족들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이 영화처럼 우리 삶에도 극적 상황과 수많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고, 좌절도 한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 설교 인도자로부터 본문 말씀이 주어지면 나는 먼저 무릎 꿇는다.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다.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예배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리고 묵상한다.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한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80~90년대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많다. 80년도에 나온 호산나 뮤직에서 나온 앨범들이 대부분이다. 옛날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음악성은 덜 하지만 찬양 가사의 전달력은 매우 뚜렷하다. 그만큼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만드는 것처럼, 나 또한 찬양에 설교 본문 메시지를 적용해 찬양을 구상할 때 하나님 성도들에게 마음의 소리가 전달되는 것 같다.



이재훈 목사와 일본어예배 리더십들이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리더십, 성도 총출동 축제 한마당 ... 포럼도 개최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선봉장 일본어예배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1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본어예배를 위한 축제 한마당이였다. 일본어예배 리더십과 성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어예배를 섬겼던 목회자들도 총출동했다.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는 나문채 장로 선교사 파송, 박종길 목사의 말씀, 이재훈 목사의 축사, 감사패 증정,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종길 목사는 “일본어예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일본인 전도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축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일본어예배는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주요 통로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일본어예배 협력목사였던 다카미자와 목사(현 할렐루야교회 일본어예배)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일본과 한국의 화해의 가교가 되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화해와 일본선교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자 성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일본어예배의 처음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10월 10일에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일본선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지난 25년 동안 실시한 일본선교활동을 발표했다. 비전과 협력선교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비전교회 및 러브소나타 중장기 전략, 온누리교회 일본선교 전략 등에 대해서도 나눴다.

일본어예배는 1989년 동부이촌동 일본 주재원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모임으로 시작했다. 1990년 주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강좌를 열었고, 그 해 10월 일본어예배부가 창립되었다. 러브소나타와 일본 CGNTV, 일본비전교회와 연계해 스태프와 목회자, 봉사자 파견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본 아웃리치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11월 8일까지 접수

11월 8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해외 지역개발 사업을 돕는 장·단기(단기 2년 이하, 장기 4년 이상) 사역자와 국내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해외사역지로 파견되는 사역자다.

국내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역자는 세네갈, 르완다, 감비아, 인도, 네팔, 미얀마, 모로코 등지에서 활

동하게 된다. 국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NGO 더멋진세상(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708호)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kmkim@abetter-workdork)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햇불트리니티, 목회사역박람회 개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목회사역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과 동문들이 다양한 목회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The Harvest is Plentiful!’을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27일에는 채플 특강이 진행되고, 28일에는 심포지엄1로 열린다. 심포지엄1 주제는 ‘Christian

School Ministry, Church Planting’이다. 10월 29일 열리는 심포지엄2 주제는 ‘병원, 학교, 교회사역’이다. 같은 날 열리는 심포지엄3에서는 ‘작은교회운동, 교회개혁’에 대해 배운다. 30일에는 상담사역 특강이 있고, 31일에는 채플 특강이 이어진다.

문의: 02-570-7372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정신건강 세미나

조현병(정신분열병) 극복하기...11월 7일, 14일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2015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조현병(정신분열병) 극복하기’다. 11월 7일과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11월 4일까지 선착순 12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kr)나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교재와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의 두 번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1주차(11월 7일)에는 장순우 정신과전문의가 조현병의 주요 이

슈(1) & 비약물치료적 접근, 낙인의 극복과 가족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2주차(11월 14일)에는 남윤영 정신과전문의가 조현병의 주요 이슈(2) & 약물 및 의학적 치료,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와 적응 돕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조현병에 대한

오해, 인지행동치료 및 정신치료, 가족 대응방법, 합병증 및 약물치료, 만성화예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10-3098-1753,

010-3792-0071

/ 정현주 기자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정신건강 세미나		
주 간	강의주제	강 사
1주 11월 7일	- 강의 1 : 조현병의 주요 이슈(1) & 비약물치료적 접근 - 워크숍 : 조현병 극복하기 I - 강의 2 : 낙인의 극복과 가족의 역할	장순우 (정신과전문의)
2주 11월 14일	- 강의 3 : 조현병의 주요 이슈(2) & 약물 및 의학적 치료 - 워크숍 : 조현병 극복하기 II - 강의 4 :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와 적응 돕기	남윤영 (정신과전문의)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가을나들이

어르신과 직원 660명 참석

지난 1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춘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에는 어르신과 직원 660명이 참석했다. ‘매일 꽃 필 무렵’을 쓴 김유정

작가 생가 방문, 강원도립화목원 관람, 신복샘밭 장터 등을 구경했다. 나들이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19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 10월 20일(화) 일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 10월 21일(수) 오이타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 10월 22일(목) 실행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 10월 23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10월 24일(토)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 10월 25일(주일) 행사 모든 일정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제1070호 | 2015년 10월 18일(주일)

■ CGNTV 간증 공모 최우수작



초라해 보이던 내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 이현주 성도(오산 침례교회)

그때 한 나병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마8:2).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나병환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의문스러웠다.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 한번으로 얼마든지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친히 손을 내밀어 그 나병환자의 몸에 대셨을까? 예수님은 나병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병보다 그 병 때문에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소외감을 먼저 보셨던 것이다. 그래서 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다.

그 순간 나병환자는 어떠했을까? 이제까지 한번도 느끼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뜨거운 사랑의 전율이 온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 가득히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목상이 단순히 나병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깨닫게 한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바라보셨던 그 안타까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도 나병환자처럼 처지를 비판하며, 절망하고, 어둡고, 상

처투성이인 자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내가 받았던 절망과 외로움, 거절감의 상처로 나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다. 고통 속에 시달렸다. 나는 항상 내 인생이 참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왔다.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거친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하시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나를 오늘 예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 나병환자를 고쳐주셨던 손으로 만지셨다.

“현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왜 모르느냐? 이 세상에 너만 홀로 버려졌다 해도 나는 망설이지 않고 하늘보좌를 버리고 널 위해 세상에 내려와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동안 머리로만 믿어왔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을 치며 와 닿았다. 가슴에서 우러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했다.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죄를. 그러자 어둡고 깨어진 상처로 늘 슬프고 아파하기만 했던 초라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 있었다.

■ 열방탁구대회를 마치고



탁구선교를 위하여

/ 양영자 선교사(한국WEC국제선교회)

지난 10일 열방탁구대회가 열렸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선교를 목적으로 탁구에 관심 있는 성도와 선교사,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개최해준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온누리교회가 솔선수범해서 탁구 대회를 개최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탁구 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탁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가 빠어나다.

한 예로 파키스탄에 후원자가 탁구대를 설치해 주면서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분 적이 있다. 교회 안에 탁구대를 설치했더니 청년들이 모이고, 여성들이 모이고, 중장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탁구를 통해 전도의 장이 펼쳐졌다.

어느 무슬림 마을에도 탁구대를 설치했더니 청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탁구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들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들끼리 탁구대회도 개최했다. 탁구가 전도와 선교의 탁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를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이 필요한데 탁구

가 탁월하다. 어르신과 여성들, 어린이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시절에 해외 경기를 자주 했다. 당시는 한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는데 나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서 상대국 선수들에게 나눠줬다. 아마 그 일이 나를 선교사로 만들어 준 계기가 아닐까 싶다. 직업을 살려 몽골과 중국을 오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다.

몽골에 있을 때에는 탁구 클럽도 운영했는데 하루는 모든 선수들을 모이게 했다. 시합을 시켜 상품도 주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탁구선교다.

나는 1997년도에 선교지로 나가 2012년도에 한국에 왔다. 지금은 한국에서 후보 선수들과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 남편은 아직도 몽골과 중국을 오가면서 성경번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도 영어, 중국어 등으로 전도지를 제작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나눠주고 있다. 앞으로도 탁구라는 스포츠가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도 탁구를 통해 역동적인 선교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 울어라 한반도에 집회 후기



통일과 북한 땅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 공지한 형제(Pole2공동체)

이서진 목사님이 ‘울어라 한반도에’ 집회를 섬겨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에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가 모처럼 주어진 쉬는 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고민 끝에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울어라 한반도에 집회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사실 나에게는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다. 쉬는 날을 포기하고 참석한 집회에서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에 걸맞게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내가 소속된 팀은 플래시몹 형태의 위십을 준비했다. ‘FL 위십댄스팀’과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에 맞춰 동작을 준비했다. 성도들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었다. 나는 위십을 잘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에 매진했다. 동작을 더 잘 따라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켰다. 부담감이 있지만 온누리교회 축제 한마당이니 모두가 함께 즐기자는 마음으로 연습에 참여했다. 그 덕분에인지 연습하는 내내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

마침내 축제가 시작됐다. 무대에 긴장감이 흘렀다. 역시나 나는 서툰 몸짓으로 많은 동작들을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이였다. 모두 함께 웃으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하나가 됐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차세대와 한국교회, 북한 땅, 선교사님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의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지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구나”는 생각이 들어 슬펐다.

깊이 회개하고, 민족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 주를 위해 영광 돌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통일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온누리교회가 서른 살이 되었다. 나는 이번 울어라 한반도 집회를 통해 느낀 점이 많다. 온누리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북한 땅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바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세례 간증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 임상균 성도(성동광진공동체)

내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고등학교 때다. 모태신앙인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왔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교회는 친구를 만나는 장소 정도로 생각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인들의 권유로 몇 번 교회를 찾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오만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지며 방탕하게 살았다. 20대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었다. 건강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결국 나는 스스로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 아버지 곁을 떠난 이후에는 더욱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났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고 지내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다. 아버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에 나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변화를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셨다. 어느 때보다 진실 되고,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이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왔다. 그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내 삶이 달라졌다.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께 지난 일들을 사죄드렸고,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버지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셨듯이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존재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가족반에 등록했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마음에 자유가 생겼다. 그로 인해 한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진실된 종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영원히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시길 소망한다.



장로칼럼 박두원 장로(일산공동체)

믿음과 사랑

나의 부친은 북한에서 외아들로 태어나셨다.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이셨다. 아버지는 내가 청소년기에 일찍 작고하셨다. 내 아내도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아내가 10살 되던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나도 아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지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작년에 결혼한 맏딸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딸이 산후조리 차 우리 집에 왔다. 우리 부부는 25년 만에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겼다. 한편으로는 세월의 빠른 속도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작은딸이 영화 한편 보러 가지고 한 적이 있었다. 작은딸과 데이트를 하면서 본 영화는 ‘사도(思悼)’였다. 딸과 영화를 보면서 문득 사도(使徒)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것과 사도(思悼)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묵상했다.

사도세자는 선택받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부자(父子)와 가족 간의 관계는 미움과 증오로 변해버렸다. 결국 귀한 자체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다. 아버지 영조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또 세상의 출신 성

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고 후일을 맡기셨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자기가 가진 잠재능력 그 이상을 발휘한다고 한다. 우리는 사도들의 삶과 죽음을 영광스런 일로 칭송한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는 내 몫이다.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존재 자체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 세대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라고 한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도 불신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믿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는 말씀도 있지 않은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는 말씀도 묵상했다. 믿음도,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있는 곳 가정,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신뢰 관계 돈독해지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이규선 권사(한강공동체)

드러내고, 인정하고, 낮아지기

나는 1998년 9월 마지막 주를 잊을 수 없다. 남편과 전화 중에 연락이 끊어져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근처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런 환자는 없다고 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을 온전하게 돌려 보내주시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기도했다. 그렇게 5분쯤 흘렀을까. 남편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주일 아침이 됐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던 나는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교회로 초대하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한 주도 빠짐 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매주 새로운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교회 등록과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았다. 하나님은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16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도록 성실하게 이끄셨다.

그러던 내게 공동체 찬양팀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찬양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말고는 모르는 찬양이 많았기에 부담감이 커졌다. 서점에 내려가 경배와 찬양 테이프와 악보집을 구매해 매일같이 듣고 부르며 연습했다. 주님은 찬양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셨다. 훈련과정 속에 삶의 기쁨을 알게 하셨다.

믿음생활을 하며 내 삶이 힘들 때 그 이유가 궁금했다. ‘도대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나의 무의식이 궁금하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상담 공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은 내면의 상

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다. 깊은 상처는 죄 된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형성된 가치관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었다. 내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다. 내 연합함을 고백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늘 붙잡았다. 나는 상담에 임할 때,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방향으로 형성되길 기도한다. 우리는 믿음 안에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먼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상의 상담 기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자신이 가진 두려움에 직면하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면 마음은 옥토로 변해 말씀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포된 예수바보행전은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했다. 상처를 치유하고,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상담 과정은 예수바보행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바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향한 삶으로 예수를 바로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낮아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풍성한 말로 포장하기 보다는 실재를 통해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겸허하게 나아가는 길로 따라가고 싶다. 내게 찬양은 평생 가야 할 길이다. 더불어 상담은 타인의 아픔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훈련이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다.



신앙에세이 유현목 목사(오콜랜드 온누리교회)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그것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욕구부터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간은 욕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경험한다. 욕구의 추구는 항상 만족과 쾌락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참나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성취 결과가 무의미와 공허일 수도 있다. 치열한 경쟁과 투쟁의 노획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 크고, 본질적인 욕망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실망, 두려움 등을 느끼면서 내면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이 사실에 눈뜨기 시작했다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것을 진정한 관계 또는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욕망들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만큼이나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근

원적인 지향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안식과 근원적인 사랑의 욕망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성적인 만족, 성적 쾌락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강렬한 욕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갈망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의 중심 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 비추볼 때 이러한 열망은 우리를 종종 비진정성과 위선에 빠지게 만든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실상은 물질적인 소유와 사회적인 성공, 종교적 명성을 추구할 때가 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합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이고, 표층적인 태도는 성스럽고 거룩

한 모습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한 국교회와 나 자신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나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욕망을 투사하면서 스스로 거짓된 자아에 함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 중심의 욕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찰해본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중심의 심지에서 나온 것인지를 반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인지 말이다.

가끔씩 현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곤 한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스스로 하나님의 꿈이요, 영적 열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포장기 벗겨지면서 허망함을 느끼곤 한다. 아마도 나의 욕망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변형되어야 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날까지, 왜곡되고 상처 입은 욕망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들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든, 연약한 자가 일어나는 일이든 간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 5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다스다 연못을 가실 때 그곳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되면 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집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소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작은 예수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을 때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적이거나 역사,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을 때 목회자들 사역자를 주목하는 순간 예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 사람 또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바보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돈을 기대했는데 그보다 값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은 주십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실패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필요, 더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만 붙잡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답게 살아가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사람들이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책에서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는 성가대에 있는 예쁜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청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봉독하기로 한 청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대신 성경봉독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순간 그 예쁜 아가씨 생각이 났습니다. 나가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그 아가씨가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하는 생

각이 들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청년은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도둑처럼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은 자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성경봉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아가씨도 잊어버리고, 단상에 계신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 질문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언제나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돈 한 톨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역을 통해 구제하고, 나누고,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제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를 통해 진정한 생명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알기 쉬운 예배상식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예배는 왜 주일(Lord's Day)에 드릴까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인구 조사를 시행했다. 제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구제적인 시간과 공간, 즉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다. 단연컨대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기독교 예배 또한 시간과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시간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는 시간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신앙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를 통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시간의 역사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신 사건이다. 신학자 바르트(K.Barth)는 이것을 ‘영원이 시간 속으로 침투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단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반복되는 리듬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예배의 기초로 삼고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첫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 유대교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 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 나아가 유대교의 한 주에 있어서 안식 후

첫 날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의 날(Lord's Day)’로 바뀌게 되었다. 기독교는 주일을 중심으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도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셨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성전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있기 전 모습이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는 날까지 모두 열한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 여섯 번이 첫날(주일)에 나타났다. 약속된 성령의 강림이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고, 바로 그 주의 첫날에 베드로에 의한 최초의 복음 설교가 있었다. 사도 요한은 수년 후 주일에 인봉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다.

결국 주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날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안식 후 첫날이 기독교의 예배의 날이 된 것은 사도들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주일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이다.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고,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다.

북아프리카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든 근심케하는 일들을 삼가고 악마에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일을 잠시 제쳐놓아야 한다”

고 권면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일곱째날을 지키지 않으며 주일을 지키며 산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그의 죽음에 의하여 다시 소생함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강조했다. ‘부활로 신성하게 된 날’이며, ‘모든 날의 여왕’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일요일(Sunday)과 주일(Lord's Day)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했다.

“신약시대 이후 신자들은 첫날을 안식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이 날이 모든 날 가운데 머리되는 면류관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은 빛을 창조하시고(창 1:3),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말 4:2)이 나오는 날이기에 일요일(Sunday)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요일은 이방인 풍습에도 있는 것이므로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보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성서적이며, 신앙적이다.”

결국 주일은 역사의 장(場)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시작되었으며,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주일은 유대교의 안식일, 세속적인 일요일과는 다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왜 주일에 예배드리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